

독서수업
지도안
교사용

초등학교 6학년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문은아 글 | 전명진 그림 | 웅진주니어 | 60쪽

독서 준비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 예측하기
독서	책을 깊이 있게 읽기
독서 후	생각 나누기, 독후활동지, 정리하기

차시별 수업 계획 예시

단계	개요	차시	활동 내용	비고
1	독서 준비	1	읽을 책을 정하고 책 내용 예측하기 · 읽을 책 정하기 · 책 내용 예측하기(표지) · 책 내용 예측하기(저자와 머리말)	학생 1인에 책이 1권씩 모두 있어야 함.
2	독서	2	책을 깊이 있게 읽기(1) · 주장이나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 며 읽기	3차시 동안 책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하기.
		3	책을 깊이 있게 읽기(2) · 참고자료(5·18민주화운동)	
		4	책을 깊이 있게 읽기(3) ·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3	독서 후	5	책 내용을 간추리고 생각 나누기 · 책 내용 간추리기 · 독서 토론하기	
		6	독후활동지 · 어휘력 기르기 · 독해력 기르기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1	학생들에게 독후활동지를 나누어 주기.
		7	독후활동지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8	정리하기 · 독서 활동 돌아보기 · 더 찾아 읽기	



독서 지도안





📖 읽을 책 정하기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 관심 있는 문제 정하기

1)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환경 오염, 인공 지능 발달,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같은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 최근에 본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에서 사회 분야를 다룬 책을 찾아 문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2) 자신이 관심 있는 문제 정하기

- 관심 있는 문제와 관심 있는 까닭을 정리해 봐요.

관심 있는 문제	관심 있는 까닭
(예)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왜곡	(예) 요즘 TV와 인터넷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치인들의 발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3) 친구들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그 문제가 왜 생긴 걸까?
- 그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모둠이나 학급 전체가 관심 있는 문제를 정하고 문제와 관련 있는 책을 찾아봐요.

💡 정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이 읽을 책을 정하기

1) 누구와 읽을지 정하기 : 반 전체 / 모둠 / 혼자 / 기타

2) 어떤 책을 찾으면 좋을지 생각하기

- 같은 문제를 다룬 책이라도 어떤 책은 이야기 글로, 또 어떤 책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나 주장하는 글로 되어 있어요. 글 종류가 다른 책들을 비교하며 읽을 책을 찾아봐요.

3)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읽을 책 평가하기

- 모둠에서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이 있나요?
- 책 내용이 너무 어렵거나 쉽지 않나요?
-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책은 직접 찾아 살펴보고, 주변에서 찾지 못한 책은 인터넷을 활용해 제목, 표지, 차례, 서평이나 머리말 따위를 훑어보고 판단해요.

4) 한 학기 동안 읽을 책을 정하고 그 책을 고른 까닭 이야기하기

책 제목	고른 까닭
『이름 도둑』	(예)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름 없이 희생된 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이다.



☞ 자신이 정한 책의 앞뒤 표지를 살펴며 친구들과 질문 주고받기

- ① 자신이 정한 책을 뒤집어 펼쳐 놓는다.
- ②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본다.
- ③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책과 관련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본다.
- ④ 친구들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이름 도둑』 표지 탐색하기

※ 학생들 각자 갖고 있는 책 표지를 보면서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니다.



💡 책 제목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이름 도둑'이라는 게 대체 뭘까?

(예) 많은 사람들을 이름도 없이 죽어가게 만든 학살자를 '이름 도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닐까?

💡 앞뒤 표지 글귀를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오월 그날이 돌아올 때마다 '이름 도둑'을 잊지 않겠다는 걸 보니 '이름 도둑'은 학살자가 아니라, 희생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오월 그날'이란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 '5·18문학상'이란 무엇을 기리는 걸까?

💡 앞뒤 표지 그림을 보고 질문 주고받기

(예) 앞표지 그림에 보이는 인물이 '이름 도둑'인 걸까?

(예) 뒤표지 그림의 어두운 숲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아이는 앞표지의 인물과 같은 인물일까?

💡 책의 저자를 살펴보기

책의 앞표지 날개에 나와 있는 글쓴이 소개를 읽어 봅시다.

- 글쓴이 문은아 선생님은 밤송이처럼 까슬까슬한 이야기, 재채기처럼 간질간질한 이야기, 노을처럼 울컥울컥한 이야기, 바다처럼 두근두근한 이야기, 우주만큼 커다래지는 좁쌀 이야기들을 짓고 싶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를 뜻하는 것일지 생각해 보세요.

⇒ (예) 마음을 움직이고 설렘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

💡 작가의 말을 읽어보고 내용 예상하기

책의 58~59쪽에 나와 있는 작가의 말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부분을 찾아보세요.

- 글쓴이 문은아 선생님이 이 책을 쓰신 계기

⇒ (예)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 가루의 정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실 규명을 외치던 이들을 막던 것이었고, 그 사진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참사 중 한 장면이었다는 것어요.

- 작품에 담긴 글쓴이 문은아 선생님의 마음

⇒ (예) 그해 5월의 참뜻이 광주에 멈추지 않고 이팝꽃처럼 방방곡곡 퍼져 나가게 하고 싶었어요.



책 읽을 때 생각할 점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며 앞에서 정한 책을 꼼꼼히 읽어 봅시다.

주장이나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기	제목이나 내용을 보며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생각해 봐요.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문단이나 책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u>스스로</u> 점검하며 읽기	자신이 지금 책을 제대로 읽는지 생각해 봐요.
질문하며 읽기	책을 읽고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며 생각을 넓혀요.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며 읽기	글쓴이의 생각과 같은 점, 다른 점을 생각해 봐요.

책 읽기

💡 중심 내용을 찾으며 읽기

- ① 무엇을 다룬 글인지 생각합니다.
- ②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문단 전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문단의 중심 내용은 문단 첫머리나 끝머리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④ 중심 내용이 글에 드러난 경우도 있지만 숨겨진 경우도 있습니다.

💡 스스로 점검하며 읽기

- ① 책을 읽다가 종종 읽기를 멈추고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 ② 새롭게 안 내용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은 표시를 합니다.
- ③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두세 번 더 천천히 읽어 봅니다.
- ④ 읽기에 집중이 잘 안될 때에는 첫 문장부터 다시 읽어 봅니다.

(참고)

※읽기 점검하기 지도의 필요성

- ① 의도에 맞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 ② 필요나 목적에 맞게 글을 이해할 수 있다.
- ③ 읽는 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수 있다.

※읽기 점검하기 지도의 원리

- 글을 이해한 내용이 글의 내용이나 의도에 맞는지 점검하며 읽는다.
- 글을 읽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서 읽는다.



『이름 도둑』 깊이 있게 읽기

💡 주장이나 설명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기.

책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예)

쪽	글을 쓴 목적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
34쪽	“그럼. 이 무덤들을 봐.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산에는 이름 없는 봉분들이 제법 있었다. 하나같이 1980년 5월에 생긴 것들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42쪽	우리 셋은 피시방부터 갔다. 먼저 1980년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전학생을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에서 무서운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나 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전학생이 이름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52쪽	“이리 가까이 두고도 찾지를 못했어. 아버지가 찾지를 못했어.” 할아버지가 마른가슴을 막 쳤다. 내 가슴도 아팠다.
56쪽	‘준호야, 나 잊지 마.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마.’ 김준호가, 김준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 시민과 전라 도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두환 보안사령관 및 12·12사태를 발생시킨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김대중 등 민주정치 지도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일어난 운동이다. 신군부 세력은 5월 17일에 사회 혼란을 막는다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계엄령을 확대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으며 군인들이 대학에 들어가 대학생들을 감시하도록 했다. 이튿날인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대학생과 시민들이 계엄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 공수 부대로 구성된 계엄군을 보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하지만 분노한 광주 시민들이 나서면서 시위는 더욱 확대되었다. 1980년 5월 21일 전남 도청 앞에 모인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평화적인 시위였지만 공수 부대로 이루어진 계엄군은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등 광주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시민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계엄군은 시 바깥으로 물러났고 시민군은 계엄군과 협상을 벌였지만 계엄군은 병력을 보강한 뒤 다시금 광주 시내로 들어가 시민군을 진압했다. 5월 27일 새벽에 도청에서 이루어진 진압 작전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로써 5·18민주화운동은 끝을 맺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죽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수백 명, 부상자만 수천 명에 이를 정도였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들의 시위와 민주화 요구를 폭동이라고 선전했지만, 차츰 실상이 밝혀지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95년에는 ‘5·18 특별법’이 제정되어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고, 희생자들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희생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참고서적 : 〈한국사 사전2〉, 〈시사상식사전〉)

자신이 책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종종 읽기를 멈추고 읽은 내용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뻐서 탄탄 하구먼요——”
 녀석이 뽀록 뽀록으로 말했다.
 “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김준호. 네 이름은 뭘지 모르겠어요. 진짜 네 이름 같았지.”
 “그렇다고 나의 할아버지한테서 아예한테 네 이름은 아예!”
 민수가 대서 대답해 주었다.
 “아, 나도 진짜 이름을 아예한테 물어 들었는데 알지 않아.”
 그래서 온갖 이름을 물어 봐들다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이 흐느끼었다. 밖에서 자책직으로 생각했다. 드디어 이름
 도둑을 잡았나고 다시 아예한테.
 이름 같아서 저런 생각이 떠돌았다. 다섯 살만 조금있고,
 딱 하루만. 나중에는 내가 정말 사라지는 거 같았다.
 조바니로라도 예가 있을 거야. 그때는 녀석이 조바니로 아예가 있을
 때. 불쌍한 것도 같았다.
 “지금으로 이름은 모르겠어. 내가 김준호라고 불러 줄테
 예. 아무렇게나 이름 짓기엔 얼마나 좋겠는지도 몰라.”

- 전학생은 어쩌다가 자기의 진짜 이름을 모르게 되었을까?
- 전학생은 왜 다른 이름과 달리 ‘김준호’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을까?

반년 만에 찾아다니는 길도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형집행된 후죽어 버렸지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제로지를 통해 지어지고 살기도 못 했다. 그저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었다. 나같은 것지만 그렇게, 억척비, 총 날림으로 허비한 돈까지가 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껏 문 한번 못 열었다고 했다. 그리고 해도 2800년이었잖아.

할아버지는 뜻이 못나서 아비한테라도 이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그 훗날 태어난 손에게도 아버지께 이름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준호야,” 하고 나를 부를 때였다. 아버지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여기까지 읽어야 끝이다. 그 때까지는 읽을만할까.

전원생들 몇 배 이질한 읍골부지 읍골부지? 자기 이름과 똑같은 이름과 출신이 나오잖아. 아니면 자기 이름을 붙여 주잖아? 태어난이었을까? 한지 기병이 말한 대신 복자 어준강은 읽었다.

아버지께 지은 실종 사고 사형 신고로 바꿨잖아. 두명씩

- '나'(준호)
- 1980년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지만 숨죽이던 때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 생각 나누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 책 내용 간추리기

- 1) 책 한 권을 끝까지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 2) 이야기 글은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요.
- 3) 앞에서 한 활동(표지 살피기, 차례 살피기, 책을 깊이 있게 읽기 등)을 바탕으로 하여 책 전체의 내용을 간추립니다.

TIP

책 내용을 간추려 쓸 때는 먼저 중심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큰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이후 생각나는 대로 줄거리를 정리한 후, 쓴 글을 찬찬히 읽어 보면서 다시 글을 다듬습니다.

📖 『이름 도둑』의 내용 간추리기

💡 다음 순서에 따라 책의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 1) 중심인물과 그 주변 인물들은 누구인가요?

⇒ 나(준호), 전학생(준호의 큰아버지), 준호의 할아버지, 민수 등

- 2) 이 책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나는 대로 꼽아 보세요.

(예) ① 준호네 반에 전학생이 온 뒤로 아이들이 돌아가며 이름을 도둑맞았다가 찾았다.

② 준호가 이름을 도둑맞은 뒤 며칠이 지나도록 찾지 못했다.

③ 준호는 직접 이름을 찾기로 하고 용의자인 전학생을 몰래 뒤따라갔다.

- ④ 준호와 민수는 전학생의 사연을 듣고 전학생의 진짜 이름 찾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
- ⑤ 준호는 할아버지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이 전학생의 모습과 같은 것을 보고 할아버지를 야산 무덤으로 데려갔다.
- ⑥ 준호는 할아버지로부터 1980년에 있었던 큰아버지의 일을 알게 되었다.

3) 위 2에서 뽑은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일을 추리고 일어난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가이드) 중심인물인 ‘나’(준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합니다.

4) 위 3에서 정리한 순서대로 내용을 이어서 쓰고 글을 다듬어 완성합니다.

(가이드) 책 내용 간추리기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대강의 내용 간추리기를 평가할 때에는 글에 나타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도록 합니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나 행동이 드러나게 글을 쓰도록 합니다.
- 쓰기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글을 적극적으로 나누는 태도를 지니도록 합니다.



독서 토론하기

읽은 책과 어울리는 활동을 하며 독서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독서 토론하기

1) 독서 토론을 할 만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기

- 한 주제로 학급 전체가 토론할 수도 있고 모둠별로 토론할 수도 있어요.

2)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하며 독서 토론 주제 정하기

-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 자신이 읽은 책 내용과 관련이 있는가?
-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는가?

3) 독서 토론 주제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며 독서 토론 준비하기

4) 토론 절차를 생각하며 토론하기

- 주장 펼치기 :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칩니다. 이때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 반론하기 : 상대방 주장이 타당하지 못하거나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점을 밝힙니다.
- 주장 다시하기 : 자기편 의견을 다시 강조하면서 상대방 반론을 반박합니다.
- 정리하기 : 찬성편과 반대편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판단을 내립니다.

5) 토론을 마치고 새롭게 안 점이나 생각이 변한 점 생각하기

『이름 도둑』을 읽고 독서 토론하기

💡 독서 토론 주제를 의논하여 정하기

- (예) ·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왜곡되거나 폄훼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없다. (토론이 아니라, 토의 주제로 적합함.)
-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잘 담고 있을까? → 토론 주제로 적합함.

💡 한 주제에 따라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기

(예) 토론 주제 : 이 책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잘 담고 있을까?

주장	근거
잘 담고 있다.	꼭 저항 정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5·18민주화운동을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잘 담고 있지 않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에 희생된 인물과 주변의 이야기를 다루고는 있지만, 민주 사회를 열망하던 저항 정신에 대해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 위와 같은 과정으로 준비한 뒤, 모둠 단위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토론을 진행합니다.



어휘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희멀건 얼굴에 목 늘어난 파란 티셔츠와 빛바랜 녹색 반바지라니,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다. **기본형 : 희멀경다**
-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전학생은 신출귀몰했다. **기본형 : 신출귀몰하다**
 - 전학생과 헤어지면서 슬쩍 떠봤다. 혼자 두고 오기가 그랬다. **기본형 : 떠보다**
 - 할아버지도 자꾸 고꾸라지는 바람에 우리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기본형 : 더디다**
 -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생했다. **기본형 : 생생하다**
- (나) · 지민이 주위에 아이들이 바글거렸다. 지민이 물건들도 ㉠ 대접을 받았다.
- 아들의 ㉡ 를 바라던 아버지가 오래 살았던 온갖 것들의 이름을 따와 지은 이름이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희멸경다 : (④) · 신출귀몰하다 : (⑤) · 떠보다 : (①)
- 더디다 : (③) · 생생하다 : (②)

- ① 남의 속 뜻을 낱치시 알아보다. **떠보다**
- ② 시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다. **생생하다**
- ③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 **더디다**
- ④ 희고 깨끗하게 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희멸경다**
- ⑤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지다.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신출귀몰하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나라의 보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국보급**
(예문) 천진스러운 정도로 티 없는 노장의 미소는 가히 국보급이다
- ㉡ :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삶. ⇨ **무병장수**
(비교) 만수무강 : 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을



독해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름 도둑이라니?” 녀석이 내 손을 뿌리치며 모르는 척 했다.

“어디서 발뺌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나는 이름표를 빼앗아 녀석한테 들이밀었다. 모양만 이름표일 뿐, 아무 이름도 없었다.

“미안해, 그냥 하루만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 했어. 다른 애들처럼 딱 하루만…….” 녀석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돌려주지 않았잖아!” / “김준호, 네 이름은 웬지 마음에 들었어. 진짜 내 이름 같았지.” / “그렇다고 남의 걸 훔치면 어떡하냐! 원래 네 이름은 어쨌고?” 민수가 대신 따져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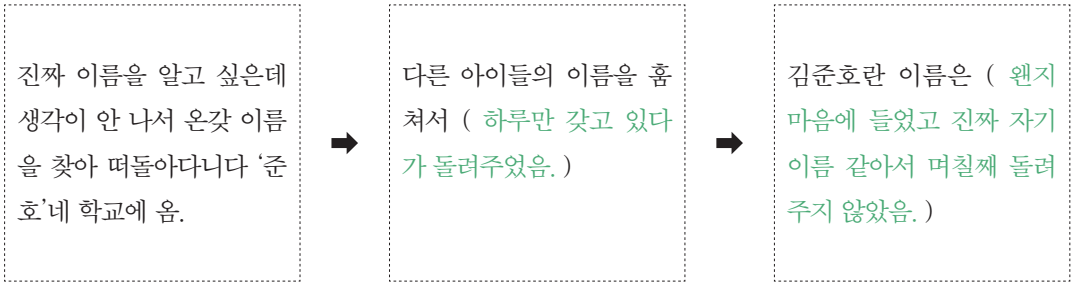
“몰라. 나도 진짜 이름을 미치게 알고 싶는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다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이 흐느꼈다. 범인의 자백치고는 싱거웠다. 드디어 이름 도둑을 잡았는데 신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지낸 날들이 떠올랐다. 닳새 동안 좋았던 건, 딱 하루였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조마조마하고 애가 탔다. 그런데 녀석은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다니, 불쌍한 것도 같았다.



⇒ 29~31쪽입니다.

1) 윗글에서 '이름 도둑'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름 도둑'이 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2) 윗글에서 '나'(준호)는 이름 없이 지내 보니 어떻다고 느꼈는지 파악하여 쓰세요.

⇨ 딱 하루만 좋았고, 나중에는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았으며 조마조마하고 애가 났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말고도 이름 없는 혼령이 또 있어?”

“그럼. 이 무덤들을 봐.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산에는 이름 없는 봉분들이 제법 있었다. 하나같이 1980년 5월에 생긴 것들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거대한 게 숨겨져 있다. 파고들수록 자꾸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이름 없는 혼령들은 내내 잠들어 있다가 이팝꽃이 피면 깨어나. 참 이상해.”

⇒ 책의 33~34쪽입니다.

(나) “안 되겠다. 빨리 이름부터 찾아.”

조바심이 났다. 김준호. 내 이름을 걸고 본격 수사를 시작해 보자.

우리 셋은 피시방부터 갔다. 먼저 1980년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전학생을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에서 무서운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나 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전학생이 이름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 책의 42~44쪽입니다.

1) 윗글에 나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기: 1980년 5월에 (이름) 없는 봉분들이 (야산)에 제법 생겼음. <p>⇒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 광주에서 무서운 (학살)이 있었고, (실종)된 사람들도 많았음. <p>⇒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다고 추측함.</p>
---	---

2) 윗글에서 말하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해 보세요.

· 5·18 민주화운동

⇒ (예시답안)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한 1979년 10·26 사태 이후, 비상계엄령이 확대되면서 1980년 5월 18일에 전남 광주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철폐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던 민주화 운동이다. 전두환 정권과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가 났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2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5월 어느 날, 큰아버지는 하드를 사 먹겠다고 나가서는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싸돌아다녔다. 광주에서 화순, 순천까지 이 잡듯이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 책의 52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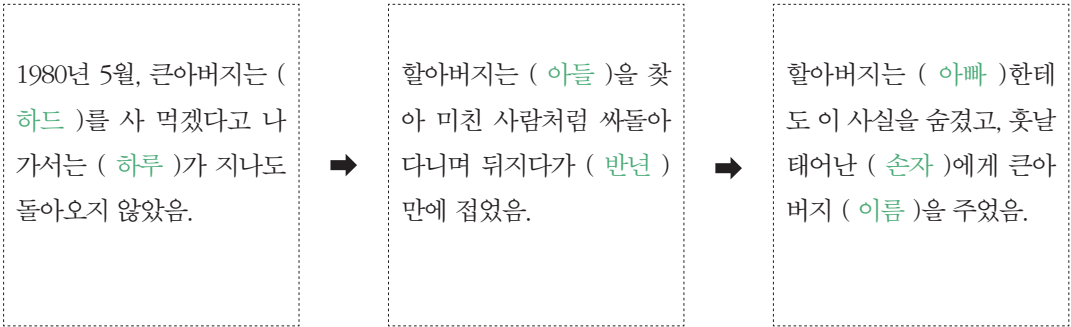
(나) 반년 만에 찾아다니는 일도 잦았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지만 숨죽이던 때였다. 설마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저 기다리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좀 늦었죠?’ 하며 큰아버지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껏 문 한번 못 잠갔다고 했다. 그해가 바로

1980년이였다.

할아버지는 훗날 태어난 아빠한테도 이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더 훗날 태어난 손자에게 큰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준호야.” 하고 나를 부를 때마다 큰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 책의 52~34쪽입니다.

1) 윗글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2)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반응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②

① ‘나’(준호)의 큰아버지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되었다. (×)

(해설) 큰아버지는 하드를 사먹으러 나갔다가 희생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은 아님.

② ‘나’(준호)와 아빠는 지금껏 큰아버지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 (○)

③ ‘나’(준호)의 할아버지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큰아버지를 잃었다고 원망하고 있다. (×)

(해설) 민주화운동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인 당시의 집권세력과 군부에 대한 원망임.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3

[복사하여 나누어줄 수 있는 학생용 활동지는 맨 뒤에 있습니다.]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980년 5월, 무명씨…….” 묘비를 읽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가 봉분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이 풀썩 일었다 가라앉았다. 할아버지가 짐승처럼 울었다. 꽃이 다 저 버린 이팝나무 가지에서 부엉이가 부— 부우— 따라 울었다. 며칠 뒤 봉분 아래에서 아이 시신이 나왔다. 어른들 사이로 슬쩍 전학생을 봤다.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겼다.
“준호야, 아이고 준호야!”

⇒ 책의 49~51쪽입니다.

(나) “어때? 이름 도둑! 진짜 이름 찾아서, 진짜 좋지? 이제 편히 자.”

나는 전학생한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김. 준. 호. 할아버지가 힘주어 새긴 이름이 묘비에 선명했다.

아빠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향을 피워 향로에 꽂았다. 불꽃이 사그라지고 실처럼 가는 연기가 나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올려다보았다. 이팝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제법 돌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아주 잠깐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이어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나 잊지 마.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마.’

김준호가, 김준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 책의 55~56쪽쪽입니다.

1) (가)에서 ‘할아버지’가 무명씨의 봉분 앞에서 짐승처럼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1980년 5월에 실종된 아들 준호의 묘를 찾아서

- ‘나’와 ‘이름 도둑’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쓴다.
- ‘이름 도둑’의 심정을 헤아려서 쓴다.

2) (나)에서 ‘나’가 ‘이름 도둑’에게 전할 말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 보세요.

⇒ (예시답안) 큰아버지, 이제 진짜 이름을 찾으셨으니 더는 전학생이라고도, 이름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오랜 세월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세요. 죄 없이 죽어간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해설) ‘이름 도둑’이자 ‘전학생’은 ‘나’의 큰아버지이며 두 사람의 이름은 김준호로 같다.

독서 후

정리하기 : 독서 활동 돌아보기, 더 찾아 읽기



독서 활동 돌아보기

- 1) 스스로 평가 기준을 만들어 평가하기
- 2)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기
 - (예1) 부족한 점 : 책의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어.
개선방안 : 글쓴이 의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 (예2) 부족한 점 : 독서 토론을 할 때 주장에 따른 근거를 잘 마련하지 못했어.
개선방안 : 자료를 좀 더 찾아보면 좋겠어.

더 찾아 읽기

- 자신이 읽은 책과 관련이 있는 다른 책을 더 찾아 읽어 봐요.
- (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동화를 더 찾아서 읽어 볼래.
 - (예) 역사적인 사건을 동화로 쓴 작품을 더 읽고 싶어.
 - (예) 가슴이 먹먹해지는 감동을 주는 동화를 더 읽고 싶어.

『이름 도둑』과 관련 있는 다른 책 더 찾아 읽기

💡 읽고 싶은 책 목록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동화들입니다.

순서	책 제목	글쓴이	출판사
1	우리들의 오월 뉴스	안오일	뜨인돌어린이
2	오월에도 눈이 올까요?	김현태	맹앤앤
3	자전거	박상률	북멘토

💡 독서 태도 기록표를 만들어 자신의 독서 태도 점검하기

독서 습관 기르기	매우 잘함	잘함	보통임
우리 주변 문제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룬 책을 읽는다.			
책 표지와 차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며 읽는다.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중요한 내용을 정리한다.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다.			

한글 한글



어휘력 기르기

이름 :

💡 다음은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 (가) · 희멀건 얼굴에 목 늘어난 파란 티셔츠와 빛바랜 녹색 반바지라니, 흑백 사진 속에서 튀어나온 아이 같았다.
-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전학생은 신출귀몰했다.
 - 전학생과 헤어지면서 슬쩍 떠봤다. 혼자 두고 오기가 그랬다.
 - 할아버지도 자꾸 고꾸라지는 바람에 우리 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생했다.
- (나) · 지민이 주위에 아이들이 바글거렸다. 지민이 물건들도 ㉠ 대접을 받았다.
- 아들의 ㉡ 를 바라던 아버지가 오래 살았던 온갖 것들의 이름을 따와 지은 이름이었다.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 뜻으로 알맞은 것을 아래에서 골라 번호를 쓰세요.

- 희멀경다 : () · 신출귀몰하다 : () · 떠보다 : ()
- 더디다 : () · 생생하다 : ()

- ① 남의 속뜻을 던지시 알아보다.
- ② 시들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생기가 있다.
- ③ 어떤 움직임이나 일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다.
- ④ 회고 깨끗하게 맑지 아니하고 약간 흐린 듯하다.
- ⑤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을 만큼 자유자재로 나타나고 사라지다.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2) 다음 뜻을 참고하여 (나)의 빈칸 ㉠, ㉡에 각각 들어갈 표현을 쓰세요.

- ㉠ : 나라의 보배가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나 물건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 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삶.

독해력 기르기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름 도둑이라니?” 녀석이 내 손을 뿌리치며 모르는 척했다.
“어디서 발뺌이야?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나는 이름표들을 빼
앗아 녀석한테 들이밀었다. 모양만 이름표일 뿐, 아무 이름도 없
었다.

“미안해, 그냥 하루만 갖고 있다가 돌려주려 했어. 다른 애들처
럼 딱 하루만…….” 녀석이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은 돌려주지 않았잖아!” / “김준호, 네 이름은 웬지 마
음에 들었어. 진짜 내 이름 같았지.” / “그렇다고 남의 걸 훔치면
어떡하냐! 원래 네 이름은 어쨌고?” 민수가 대신 따져 주었다.

“몰라. 나도 진짜 이름을 미치게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온갖 이름을 찾아 떠돌다
가 너희 학교까지 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녀석이 흐느꼈다. 범인의 자백치고는 싱거웠
다. 드디어 이름 도둑을 잡았는데 신나지 않았다.

이름 없이 지낸 날들이 떠올랐다. 닷새 동안 좋았던 건, 딱 하루였다. 나중에는 내가 점점 사
라지는 것 같았다. 조마조마하고 애가 났다. 그런데 녀석은 오랫동안 이름이 없었다니, 불쌍한
것도 같았다.



- 1) 윗글에서 ‘이름 도둑’이 한 말을 바탕으로 ‘이름 도둑’이 한 일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세요.

진짜 이름을 알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서 온갖 이
름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준호’네 학교에 옴.



다른 아이들의 이름을 훔
쳐서 _____



김준호란 이름은 _____

- 2) 윗글에서 ‘나’(준호)는 이름 없이 지내 보니 어떻다고 느꼈는지 파악하여 쓰세요.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1)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너 말고도 이름 없는 혼령이 또 있어?”

“그럼. 이 무덤들을 봐. 이름을 찾아 떠도는 혼령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야산에는 이름 없는 봉분들이 제법 있었다. 하나같이 1980년 5월에 생긴 것들이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 뭔가 거대한 게 숨겨져 있다. 파고들수록 자꾸 엉덩이가 간질간질했다.

“이름 없는 혼령들은 내내 잠들어 있다가 이팝꽃이 피면 깨어나. 참 이상해.”

(나) “안 되겠다. 빨리 이름부터 찾아.”

조바심이 났다. 김준호. 내 이름을 걸고 본격 수사를 시작해 보자.

우리 셋은 피시방부터 갔다. 먼저 1980년에 실종된 사람들 중에서 전학생을 찾아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에서 무서운 학살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 전학생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나 보다. 누가 그랬을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전학생이 이름을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1) 윗글에 나타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봅시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 시기 : 1980년 5월에 없는 봉분들이 에 제법 생겼음. ⇨ 이름을 찾아 떠도는 이 많음.

· 장소 : 광주에서 무서운 이 있었고, 된 사람들도 많았음. ⇨ 도 이때 죽어 혼령이 되었다고 추측함.

2) 윗글에서 말하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해 보세요.

· 5·18 민주화운동

⇨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2)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5월 어느 날, 큰아버지는 하드를 사 먹겠다고 나가서는 하루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몇 날 며칠을 미친 사람처럼 싸돌아다녔다. 광주에서 화순, 순천까지 이 잡듯이 뒤졌지만 소용없었다.

(나) 반년 만에 찾아다니는 일도 접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사라졌지만 숨죽이던 때였다. 설마 아이에게까지 해코지를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그저 기다리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좀 늦었죠?’ 하며 큰아버지가 돌아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껏 문 한번 못 잠갔다고

했다. 그해가 바로 1980년이였다.

할아버지는 훗날 태어난 아빠한테도 이 사실을 숨겼다. 그리고 더 훗날 태어난 손자에게 큰아버지 이름을 주었다. 할아버지는 “준호야.” 하고 나를 부를 때마다 큰아버지를 부르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다.

1) 윗글에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각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1980년 5월, 큰아버지는
□□를 사 먹겠다고 나가서는
□□가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음.



할아버지는 □□을 찾아
미친 사람처럼 싸돌아다니며
뒤지다가 □□만에 접었음.



할아버지는 □□한테도 이 사실을 숨겼고, 훗날
태어난 □□에게 큰아버지
□□을 주었음.

2)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반응을 골라 번호를 쓰세요.

- ① ‘나’(준호)의 큰아버지는 1980년 5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희생되었다.
- ② ‘나’(준호)와 아빠는 지금껏 큰아버지의 일을 모르고 있었다.
- ③ ‘나’(준호)의 할아버지는 민주화운동 때문에 큰아버지를 잃었다고 원망하고 있다.

독해력, 사고력 기르기 (3)

이름 :

💡 다음 <이름 도둑>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980년 5월, 무명씨…….” 묘비를 읽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할아버지가 봉분 앞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수북하게 떨어진 꽃잎이 풀썩 일었다 가라앉았다. 할아버지가 짐승처럼 울었다. 꽃이 다 저 버린 이팝나무 가지에서 부엉이가 부— 부우— 따라 울었다. 며칠 뒤 봉분 아래에서 아이 시신이 나왔다. 어른들 사이로 슬쩍 전학생을 봤다. 파란 티셔츠에 녹색 반바지가 꼭 금방 벗어 놓고 간 것처럼 생겼다.
“준호야, 아이고 준호야!”

(나) “어때? 이름 도둑! 진짜 이름 찾아서, 진짜 좋지? 이제 편히 자.”

나는 전학생한테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김. 준. 호. 할아버지가 힘주어 새긴 이름이 묘비에 선명했다.

아빠가 다가와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엄마는 돌아서서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향을 피워 향로에 꽂았다. 불꽃이 사그라지고 실처럼 가는 연기가 나왔다. 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를 올려다보았다. 이팝나무 가지에 푸른 잎이 제법 돋아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바람이 멈췄다. 소리도 멈췄다. 아주 잠깐 시간도 멈춘 것 같았다. 이어서 낮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나 잊지 마. 이름 없는 혼령들을 잊지 마.’

김준호가, 김준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1) (가)에서 ‘할아버지’가 무명씨의 봉분 앞에서 짐승처럼 울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쓰세요.

⇒

2) (나)에서 ‘나’가 ‘이름 도둑’에게 전할 말을 다음 조건에 맞게 써 보세요.

- ‘나’와 ‘이름 도둑’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쓴다.
- ‘이름 도둑’의 심정을 헤아려서 쓴다.

⇒

웅진주니어

값 9,500원



ISBN 978-89-01-22347-6
ISBN 978-89-01-03863-6(세트)



KC 마크는 이 제품이
공동안전기준에 적합
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주의

책 모서리에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